

연중 제4주일
구라주일

기도서 340면 (다해)

제1독서 : 예 레 1, 4-5, 17-19
제2독서 : I 고린 12, 31-13, 13
복 음 : 루 가 4, 21-30

숲 정 이

“사실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루가 4, 24)

강 련

소 리

아름다운 성전

문 선구신부 / 수류 천주교회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사셔서 “성령의 성전”(고린전 6.19)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며, “성령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신자일 경우에는 성체를 받아 모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축성된 감실”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고린전 4.17)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들의 죄악(전쟁, 낙태, 고문, 인신매매)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 이기심, 권력욕, 명예욕, 쾌락, 미움, 증오...등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사탄의 궁전인 “강도의 소굴”로 변해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영역인 강도의 소굴을 탈환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전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 “성전정화”를 자주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6.48)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내 마음 안에 짓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세속적인 집착들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수의”에 싸매어 무덤에 묻어야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갈라 2.20).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겸손으로 영적인 제단을 쌓고, 사랑으로 감실을 만들며, 침묵으로 성전의 커튼을 치고, 은유와 친절로써 성전의 문을 매달며, 정결과 신뢰로써 제단의 꽃을 꽃고, 고통과 인내로써 14처를 세우며, 기쁨과 환희로써 오르간의 멜로디를 연주하여 하나님께 최대의 사랑의 찬미가와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예언직은 바로 영신적인 교회인 영혼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여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이웃들이 내 모습을 보고 “성전정화”(세례성사)를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던 분은 바로 “무염시대 자체”였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의 덕행을 통해서 지으셨던 성전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모델입니다.

성전정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완덕의 길”이며 크리스찬의 예언직인 “복음전파”입니다.

“청와대와 언론은 앵무새 한쌍인가?”

지난 17일 盧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측의 주문에 따라 사전에 질문자와 질의내용을 선정한 뒤, KBS·MBC 두 방송사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연출한 것임이 밝혀져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견형식마저 미국식을 도입,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을 연출 했는데, 이 「1문1답식 진행」은 실상 청와대 공보비서실과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짜고 질의 내용과 답변까지도 기자단에는 미리 배포했다 한다.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질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고 참석했던 신생 언론사나 지방지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 해프닝을 연출.

「한겨레」 「CBS」 등 청와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언론사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견장 취재가 허용됐는데 질의 순서에 없던 어떤 기자는 5번이나 손을 들었지만 무위에 그쳤고 질의순서를 잊어버린 기자에게는 기자단 간사가 손짓으로 알려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한다.

더우기 이날 회견은 실제 9시에 시작됐으나 TV중계는 10시부터 방영하면서 생중계인 것처럼 오도, 국민을 또 속여 큰 비난이 일고 있다.

신문의 경우 이 기자회견을 두고 「미국식 대통령 기자회견 방식의 도입」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등으로 미화시키고 나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어떤 신문은 「준비해온 자료조차 보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극찬하기도. “보통사람, 이사람 믿어주세요.”

청와대와 언론은 정말 앵무새 한쌍인가?



“나환자 정착촌의 수녀님들”

경상도 어느 음성 나환자 정착촌의 편익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신부님의 사제관에 불쑥 나환자들이 찾아 왔다.

찾아 온 손님이라 박대할 수는 없고 하여 반갑게 맞이하고 업무를 마쳤지만 그들이 가고 난 후 그 신부님께서서는 부랴 부랴 그들이 앉았던 의자의 방석을 뺐고 그들이 만졌던 문고리를 닦는 데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환자들을 도와 줄 수는 있으나 도저히 함께 살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오래 전에 들었다.

그렇다! 돈이나 재물, 잠깐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내어 주기는 쉬워도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수녀님들이 있다. 일년 열 두달 하루도 쉬지 않고 뜯어대는 역겨운 가축들의 인분 냄새, 상처입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기록한 수녀님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수녀님들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 수녀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바로 그 나환자들 앞에서 정배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사는 수녀님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어야겠다.

2주 후면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이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며 살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사심없는 자선이야말로 가장 의미있는 보속행위일 것이다. 이에 그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전주 교구내 정착촌들을 소개한다. 이번 사순시기 동안 꼭 한번이라도 기억 하자.

1. 익산공소 :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 산 28 전화 9-3380 (동정성모 수녀회)
2. 동해원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17 전화 (0677)62-1321(작은 자매 전교 수녀회)
3. 삼지원 :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전화(0653)6-0882 (성모 영보 수녀회)
4. 신암공소 : 김제군 용지면 용암리 전화(0658)42-7179 (성모영보 수녀회)

지금 곧 분당, 단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보자. 단 한번의 위로 전화일지라도.....



성서와 함께

35. 헤로데 가문과 팔레스티나의 통치(D) : 아그립바 I, II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빌라도가 유대아 총독으로 있었고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래아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일어났다. 그 이후 몇 명의 통치자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드디어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전후로 해서 두 명의 헤로데 가문의 왕이 들어섰다.

아그립바 1세는 헤로데 대왕의 손자로서 갈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부터 교분이 있어 왔다. 그래서 37년에 필립보의 영토가 아그립바에게 주어졌고 39년엔 안티파스가 폐위되면서 갈릴래아도 넘겨졌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유대아와 사마리아 및 이두메아가 그의 영역으로 합병되었다.

아그립바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즐겨 박해 하였다 (사도 12,1-3). 사도 12,20-23의 기록은 44년에 일어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토는 분할되어 총독들이 가이사리아에서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50년에 그의 아들 아그립바 2세에게 갈릴래아와 페레아, 그리고 필립보의 영역이었던 북동 지역이 주어졌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가이사리아에 거주하던 총독들이 다스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바올로는 가이사리아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총독과 총독을 예방한 아그립바 2세에게 심문을 당했던 것이다(사도 25.13-26, 32).

로마 통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은 66-70에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다. 내부에서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일치를 이룬 때에도 로마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몇몇 게릴라 전에서 반짝하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로마인들 편에서 보면 별 볼일 없는 전과였다. 마침내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어 아그립바 1세가 통치하던 갈릴래아 도시들을 하나 하나 치밀하게 점령해 들어갔다. 갈릴래아 정복이 끝난 후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고립시켰다.

이쯤해 놓고 베스파시안은 로마로 되돌아가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 티토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략하여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뒤 성도를 점령하였다. 주피터 신의 사당이 성전에 옮겨지고 성전 전체가 모독되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항전은 마사다 요새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서 그들은 저 유명한 집단 자살로서 항전을 끝맺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미주건강식품

인삼·꿀·홍삼제품·설료차
국산차·건강선물세트·영지

이 정숙 (말다)

코아백회점 지하 다방 앞
☎ 85-0551 (교) 19

28년여 뒀아온 신용기술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 (요셉)

전주우체국 후문 앞
☎ 83-8844-84-3744

인? 나 비 커 텐

선경커피, 스왈카페트, 브라인드
홀딩도어, 홈팻션 (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 결 (올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전주시 중앙동 2가 53-5 (라자거리 옆)
☎ 82-2226, 86-5611

잠깐!

양들을 위한 목자의 단식

임실 박인호 신부

임실 농민들의 '고추 전량 수매 관철을 위한 농민 시위'가 시작된지도 20일이 되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한 때 2,000여명의 시위 군중과 600여대의 경운기가 동원된 근래 최고의 농민시위였다. 당시 목격 증인은 "농민 혁명을 보는 듯 가슴이 섬찔 했다"고 한다. 물론 여러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 왔다. 군청의 유리창을 부수고 전주 남원간 도로를 점령하므로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바람직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장엘 한번 가보라! 그 순박한 농민, 50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냘픈 시골 아낙네, 수십년 농사일에 지들린 주름투성이의 핏기 없는 얼굴의 저 농민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판단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흥분케 만들었는가? 임실 본당 박인호(베드로) 신부는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탄 발사와 백골단의 포악한 구타에 의한 진압이 없었던들 농민들은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아무튼 우린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그 힘없고 착한 농민들을 언제까지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길거리를 배회하게 할 것인가?

'당국은 하루 속히 대책을 세워라!'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억을 지원해주면서 불쌍한 농민들을 위한 몇 푼 되지않는 고추값이 그토록 아깝단 말인가? 교회도 더 이상 침묵만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된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아픔을 함께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저 5명의 농민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들어선 박인호 임실 본당 신부의 목자적 아픔을 함께하며 전투를 빈다.

요십이 (808) 김병오



교구 소식

※ 박정일 주교님 환송미사 2월13일 오전10시30분 중앙성당 교구사제단 공동집전,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회개와 보속을 위한 사순절 새벽미사

2월8일(재의 수요일)부터-일요일 제외
장소: 숲정이(해성학교)
시간: 오전6시

1. 대학생 임원단 피정및 트레이닝 : 1월30일-1월31일 장소-수류교육관 대상-각단 위대 임원 및 연합회 임원 회비-3,000원 집결-30일(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2. M.B.W「대화」과정 : 1989. 2. 20(월)-22(수) 장소-수류교육관 대상-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남녀 문의및 접수-교구청 교육국(85-0041)
3.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2월2일(목) 10시 덕진천주교회 강사-김환철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지참
4. 사회복지(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시간변경 : 2월1일(수) 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5. 인후동 성당 주수·전화번호 변경 :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소-전주시 인후동 1가 586-11번지
6. 숲정이 본당소식 : 구정 연휴관계로 2월5일(연중5주일) 2월12일(사순제1주일) 소식은 1월31일까지 모두 도착토록 협조바랍니다.

저희 부친 김약실(야고보) 상 때에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 김준호 신부
철호
창호 올림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 84-2628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현대미용학원

김금순 (테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발표력을 기릅시다. 웅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서중로터리)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자쌍용APT 앞) ☎ 83-8331~2
원장 유병철 (베드로) · 원감 박경애 (인젤라)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입니다.

